

21일 출범 장인화 차기 포스코 회장, 상생 메시지 들고 나올까

포스코홀딩스 설립 과정서 빚어진 갈등 2년 만에 봉합 여부에 관심 집중
만찬에 이강덕 포항시장 등 지역 일부 인사 초청…화합·소통의 장 될 듯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후보가 2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선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여 동안 포항시-포스코 간 갈등을 해소할 메시지를 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21일 오전 9시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주주총회를 개최, 장인화 회장 후보를 비롯한 사내외 이사 선임의견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이번 주총 주요 안건은 △정관 일부 개정 △장인화 회장 후보를 비롯한 사내외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으로,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투표에 들어갔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000년 민영화 이후 열린 정기주총에서 CEO후보주

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가 모두 회장으로 선임된 터여서 장인화 회장 후보 역시 사실상 제10대 회장으로 선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포항 포스코홀딩스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취임식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취임식은 사내 주요 임직원들 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같은 날 저녁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지역 일부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장인화 차기회장 취임을 앞두고 가장 관심이쏠리는 부분은 포스코홀딩스 설립 과정에서 빚어진 2년여 간의 갈등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포항시와 포스코그룹은 지난 2021년 포스코홀딩스 설립 과정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두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이 시작된 뒤 이듬해 2월 본점소재지 포항이전·미래기술연구원 포항본원 설치·상생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 작성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2023년 포스코홀딩스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본원은 포항산업과 학연구원 내 빙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개원한 반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남 본원을 설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포항지역에서는 지난 1년 여 동안 최정우 회장 퇴진 운동에 이어 장인화 회장 후보가 결정된 뒤에는 후보 선정 무효를 요구하는 등 양상으로 전개됐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한 포스텍의 대 및 부속병원 설립에 포스코그룹의

과감한 투자 요구가 나오면서 또 다른 이슈가 떠올랐다.

일단 지난 2년 간 깊이 펼친 갈등의 골을 메우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포스코그룹이 포항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와 포항시민들이 포스코그룹이 어떤 제언을 할 경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다.

이와 관련 최정우 회장은 지난 18일 이임사에서 지역상생과 관련한 메시지를 던졌다.

최 회장은 이날 이임사에서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침수피해 당시 지역사회에 애정으로 135일의 기적을 이뤄냈다”고 전제한 뒤 “포스코그룹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 메시지가 장인화 차기 회장에게 보내는 것일 경우 21일 취임식 또는 만찬에서 어떤 식으로든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메시지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당장 구체적인 방향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면 포스텍의 대 및 병원 설립 과제가 캐스팅 보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실적으로 포스텍은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의대 및 병원 설립 인가를 받더라도 정부지원 없는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포스코그룹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만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지역 정계가 그동안 꾸준히 포스코그룹에 대해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요구해온 만큼 장인화 차기 회장이 이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밝힐 경우 대화와 타협 테이블이 마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포스코그룹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룹 모체인 포스코가 벌써 2년째 세계적인 철강경기 침체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미래소재산업인 양극재 시장마저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당초 예상을 밟도는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분야 탄소중립과 관련 세 계적인 기관투자자들이 포스코그룹에 대한 투자철학이 진행되면서 지난 15일 기준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27.9%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9.79%와 대비할 때 무려 22%p나 빠진 것이다. 지난 2022년 이전 외국인 지분율이 60%대까지 치솟았던 것과 대비할 때는 반토막 수준이다.

따라서 내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인화 차기 회장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계 인사들은 “벌써 2년 넘게 철강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와 포스코그룹간 갈등으로 인해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는데 장인화 차기 회장과 포항시민 모두가 지역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lju714@kyongbuk.com

대구에 AI 기반 뇌 질환 치료 연구센터 건립

美 벤처기업 엘비스와 투자 협약
수성알파시티 내 부지에 175억
시내 종합병원들과도 협업 추진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뇌 질환 진단·치료 분야 벤처기업 엘비스(LVSI)가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인공지능(AI) 기반 뇌 질환 치료 연구센터를 짓는다.

대구시는 19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엘비스와 이런 내용의 투자 협약을 했다.

엘비스는 수성알파시티 내 870㎡ 부지에 175억 원을 투자해 AI 기반 뇌 질환 치료 연구센터를 건립한다.

회사 측은 이 시설을 이용해 뇌전증과 수면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엘비스는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 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대구 시내 종합병원들과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엘비스는 뇌 회로를 분석해 치매, 뇌전증 등 각종 뇌 질환을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인공지능 기

반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형 엘비스 창업자는 “앞으로 지역 의료와 첨단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해 지역 경제가 도약 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엘비스의 이번 투자로 수성알파시티가 인공지능 기반 뇌 질환 치료 등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의 새로운 연구 거점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시민 주도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맞 올려

경주시, 내달 22일 선포식 개최

경주시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달 22일 제54회 지구의 날에 맞춰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동참과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통해 최첨단 미래 도시 ‘경주의 이미지는 물론 친환경 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목표로, 대기 중 온실가스를 줄여 2050년까지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자는 범지구적 의제다.

경주시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최한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지엄’은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중립 상시교육, 시민실천단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또 같은 해 12월 열린 ‘제13회 경주 시민원탁회의’는 7개 그룹 100여 명이 참여해 연령·계층·직업별 세부 실천방안이 도출됐다.

이날 도출된 실천방안은 △매장 실내온도 지키기(소상공인) △TV 사용 시간 줄이기(시니어) △밥 보온시간 줄이기(다문화가정)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교육 실시(전업주부) △탄소중립 시민위원회 구성(환경단체) △겨울철 휴경지 풋거름작물 재배

사회안전망 경북 푸드뱅크·푸드마켓 기부 100억 돌파…역대 최고 성과

(농업인) △탄소중립 실천가 양성(교육인) 등이 제시됐다.

이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방안 도출에 힘입어 경주시는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41억원) △경주 그린뉴딜 천년숲길 조성(665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93억원)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60억원) 등 확대 실천방안을 내놨다.

특히 경주시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2026년 경주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만간 수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탄소중립 실천에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시민 실천운동’도 펼치고 있다. 먼저 지난해 ‘심포지엄’과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도출한 ‘탄소중립 실천 리스트’ 1만 부를 배포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서약서와 실천리스트를 시민들에게 배부하면서 시민 대상 실천방법 홍보는 물론 시민들의 실천의지를 보다 확고히 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민산학 주도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각 기관별 역할을 부여하면서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작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우리 시민들도 경감과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실천해 보다 나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남겨주자”고 강조했다.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경북도는 지난해 경북 푸드뱅크·푸드마켓 기부 물품 제공 제작과 청년 봉사활동을 넘겨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푸드뱅크는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과 개인의 여유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법 사업으로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사회복지 물적자원 전달체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도내에는 광역푸드뱅크 1곳, 기초 푸드뱅크 22곳과 푸드마켓 3곳이 있으며,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또 재난 발생 등 사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회안전망이 되고 있다. 지난 해 긴급 생계 위기구구,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 1만 1700여 명, 사회복지시설 1058곳을 지원했다.

경북광역푸드뱅크는 푸드뱅크사업의 발전을 위해 임직원과 기부업체 등을 직접 찾아가 홍보하고 타지역까지 방문하여 물품을 수령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밭도 뛰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2019년 73억 원, 2020년 81억 원, 2021년 85억 원, 2022년 94억 원, 2023년 101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환경국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경북개발공사, 행안부 고객만족도 ‘전국 1위’

91.68점 치립 아래 역대 최고점

경북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1.68점으로 전국 1위의 쾌거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창립 아래 획득한 최고 점수이다.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방공사 중 한 해에 고객만족도 1위, 경영평가 1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모두 달성(3관왕)한 기관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역대 최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전국 383곳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평가하며, 공공기관과의 업

무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협력업체들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환경, 서비스과정, 서비스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5가지 분야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공사는 ‘22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0.3점으로 2위라는 준수한 성과를 달성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년도 결과 분석과 이에 따른 중점 개선사항을 도출해 △SNS 홍보 및 운영 확대 △지역주민과의 소통간접화 확대 △임대아파트 주민 대상 토크 콘서트 △시설물 임차인 대상 동절기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끊임없는 고객 중심 경영을 추진했고 2023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1.7점으로 1위를 달성했다.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1면 ‘신공항 배후…’ 서 계속

이번 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의 총괄 관리에 따라 먼저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 미시행 부지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 운영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검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승인기관에 신청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으로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해 구미시가 경북의 대표 도시로 발

돋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정모 기자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 비탈면은 높이가 3m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급경사지는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정비사업을 해야 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할 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 별도로 관리되는 비탈면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급경사지로 관리되는 인공 비탈면의 높이를 기존 5m 이상에서 3m 이상으로 확대했다. 급경사지는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정비사업을 해야 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할 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 별도로 관리되는 비탈